

이청용 최다거리 11.4km·박지성 최고시속 30km

선수명	양팀 선수들 경기 중 뛴 거리		나이제리아 도달 99,340m
	평균 7,680m	평균 7,093m	
대한민국 도달 107,515m			
이청용	11,417	10,575	아이라
박지성	11,064	10,386	에루후
김정우	10,667	10,341	오바시
기성용	10,551	9,561	우체
이영표	10,289	9,299	오디아
차두리	9,750	9,260	아플리비
박주영	9,720	8,434	시투
이정수	9,516	7,049	아쿠부
조용형	8,099	5,922	카누
염기훈	7,856	4,932	에체에질레
정성룡	4,129	4,213	요보
김남일	3,433	3,723	마르틴스

■ 태극전사 16강 원동력은

조직력과 집중력이 16강행의 원동력이 됐다. 태극전사들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의 초반 흐름은 '슈퍼 이글스' 나이제리아가 주도했다. 나이제리아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탄력으로 한국의 수비라인을 뒤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첫 골을 내준 뒤 태극전사들의 모습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이

한발 더 빠르게 움직이면서 승리 같은 2-2 무승부를 만들어냈다. 강철 체력을 바탕으로 한 조직력 있는 플레이가 주효했다. 더 많이 더 빨리 달린 선수들의 헌신적인 플레이는 팀의 사기를 끌어올렸다. 특히 이청용은 이날 출전 선수 중 가장 많은 거리인 11.4km를 주파했다. 박지성(11.1km), 김정우(10.7km), 기성용(10.6km)이 그 뒤를 뒤따르고 있다. 나이제리아에서는 이들 네 명보다 많이 뛴 선수가 없었다. 최고속도 통계에서도 양팀에서 유일



23일 남아공 더반 스타디움에서 열린 B조 최종 3차전 한국과 나이제리아의 경기에 앞서 태극전사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이제리아보다 더 많이 더 빠르게 움직여

집중력 앞세워 두골 모두 세트피스로 성공

내 조직력을 가다듬은 한국은 중원에서 짧은 패스를 주고받으며 추가골을 노린 나이제리아 선수들을 강하게 압박해 갔다. 공수 간격을 짜임새 있게 유지하며 주어진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한 태극전사들은 탄탄한 조직력으로 추가실점 기회를 넘기면서 결국 동점골의 기회를 만들었다. 2-1의 리드 상황에서 뒤흔들고 패널티 킥 골을 내주며 맞은 두 번째 위기. 이번에도 한국 선수들은 부지런히 그라운드를 누비며 나이제리아의 과속공세를 막아냈다. 한국 선수들은 나이제리아와 조별리그 3차전에서 평균 7.680km를 뛰었다. 7.093km를 뛴 나이제리아 선수보다

하게 박지성이 시속 30km를 넘겼다. 박주영도 시속 29km를 기록하며 스피드 본능을 과시했다. 나이제리아는 오바시가 시속 28km를 넘겼다. 불에 대한 집중력의 결과는 골로 나타났다. 나이제리아와 경기를 앞두고 세트피스 훈련에 공을 들였던 대표팀은 두 골을 모두 프리킥 상황에서 만들어냈다. 첫 골의 주인공 이정수는 기성용이 프리킥한 공을 향해 재빨리 달려들어 헤딩에 이어 오른발로 슛을 날리며 경기 흐름을 바꿨다. 박주영도 후반 4분 프리킥 찬스에서 집중력을 발휘해 추가골을 뽑아내면서 아르헨티나전 자책골의 아픔을 씻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ju.co.kr

‘젊은 피’가 한국 축구 체질 바꿨다

이청용·기성용 등 신세대들 세계 최강 만나도 주눅 안들어

2007년 12월 한국 대표팀 사령관으로 선임된 허정무(55) 감독이 2년6개월 재임 기간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것 중 하나가 세대교체다. 한국축구 세대교체의 선두 주자는 ‘쌍용’으로 불리는 미드필더 이청용(22·불턴)과 기성용(21·셀틱)이다. 청소년대표 출신으로 유럽에서 활약하는 이들은 한국축구의 신세대다. 이들은 겁이 없다. 스페인, 아르헨티나 등 세계 최강들을 만나도 절대 주눅이 들지 않았다. 오히려 최강들과 만남을 기다리고 즐겼다. ‘블루 드래곤’ 이청용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진출 첫해인 2009~2010 시즌 5

골8도움을 올리며 ‘원조 프리미어리거’ 박지성을 뛰어넘는 맹활약을 펼쳤다. 허 감독은 대표팀에서 이들을 과감하게 기용했다. 오른쪽 미드필더 이청용은 벌써 A매치를 26경기나 뛰면서 4골을 넣었고, 기성용도 24경기에 출전해 4득점을 올렸다. 둘은 생애 첫 월드컵 본선 무대인 이번 남아공 대회에서도 조별리그 세 경기에 모두 선발로 나왔다. 이청용은 지난 17일 아르헨티나와 조별리그 2차전(1-4 패) 때 골 맛을 봤다. 기성용도 12일 그리스와 1차전(2-0 승)에서 프리킥으로 이정수(가시마)의 선제 결승골을 도운데 이어 23일 나이제리아와 3차전(2-2 무승부)에서도 0-1로 끌려가던 전반 38분 역시 프리킥으로 이정수의 동점골을 배달하는 등 16강 진출에 큰 힘을 보탰다. /연합뉴스

‘4강 신화’ 코칭스태프 “감동 다시 한번”

정해성·김현태 코치 등 그림자 지원 신화 일궈

90분 혈투 끝에 한국의 16강 진출을 알리는 심판의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자 정해성(52) 수석코치와 김현태(49) 골키퍼 코치, 박태하(42) 코치 등 코칭스태프는 물론 최주영(57) 재활트레이너 팀장과 레이몬드 베르하이엔(39) 피지컬 코치 등 지원스태프들은 모두 열싸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이들은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거스 허딩크 감독을 보좌하며 4강 진출의 밑거름이 됐던 이들이다. 정 코치는 2002년 당시 임한 ‘호랑이 코치’ 역할을 맡아 선수들의 집중력을 끌어올리고

수비진술 마련에 큰 공을 세웠다. 김 코치도 주전 골키퍼 이운재(수원)를 조언하면서 스페인과 8강전 승부차기를 승리로 이끄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 이날 감격은 코칭스태프 뿐 아니다. 선수들을 돌보는 의무팀의 터줏대감인 최주영 재활트레이너 팀장도 2002년 한일월드컵 4강 당시 태극전사들의 컨디션을 조절하고 부상 상태를 돌보는 중요한 역할을 충실히 해냈고, 이번 월드컵에서도 조별리그 기간에 ‘부상 선수 제로’의 신화를 일궈냈다. 또 ‘공포의 백백이’로 불리며 2002년 월드컵 당시 태극전사들의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게 만들었던 베르하이엔 피지컬 코치도 8년 만에 허정무호에 합류, 철저한 체력관리로 원정 16강 진출의 근간을 만들었다. /연합뉴스

오늘날에서나, 오늘날에서나 땅을 파고서 선택하는 지적행동 추구하는 것은 지적행동에 대한 열정을 나타내는 지능 지능의 상징인 것이다. 오늘날에서 땅을 파고서 선택하는 지적행동 추구하는 것은 지적행동에 대한 열정을 나타내는 지능 지능의 상징인 것이다.

한글 원도

출판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주소: 011-353-2605
전화: 010-4129-1299